

# '96 동남아시아 전자공업의 동향조사 보고서(Ⅱ)

조 사 부

## 각 국별 동향

- I. 한 국
- II. 대 만
- III. 흥 콩
- IV. 베트남
- V. 타 이

## I. 한 국

### 1. 일반개황

(1) 그림자가 비치기 시작한 한국 경제

'95년의 한국경제는 엔고 및 미국경제의 회복기조로 순조로운 수출과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견인력이 되어 '95년의 경제성장율은 8.7%에 달해 전년을 상회하는 성

본고는 일본전자기계공업회(EIA J)부품운영위원회에서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국, 대만, 홍콩 등 10지역에 동남아시아 조사단을 파견하여 각국의 기기업체 정부관계기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한 보고서를 본회에서 번역게재한 것임.

장을 보였다. 또한 금융실명제의 공적도 있어 인플레이의 우려는 약해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율도 4%대로 안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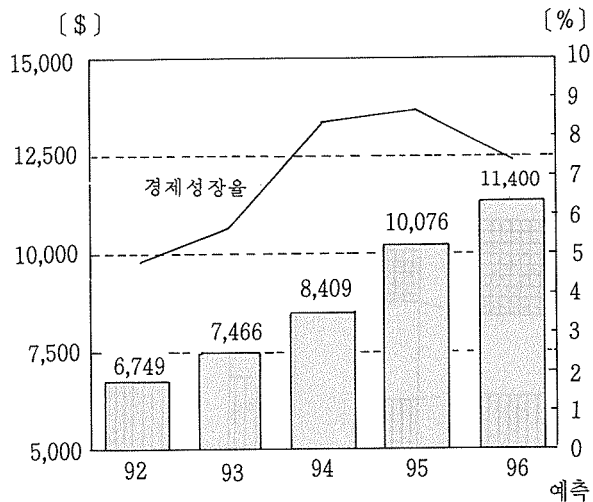
그러나, 금년도의 원고 영향으로 견인차역할을 하던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외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가 동결기조에 있어 전반적으로 경기의 후퇴감이 있는 가운데, '96년의 경제성장율은 7.4%에 머물 전망이다.

(2) 상승일로에 있는 노동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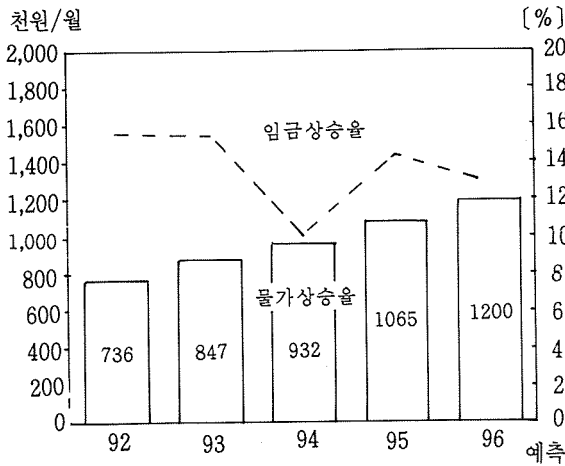
한국의 노동임금은 물가상승율이 4~5%로 안정된 추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상승을 멈춘감이 있으나, 여전히 2자리의 상승을 보이고 있어 전자산업의 평균월수(平均月收)에서는 1,200천원에 달하고 있다.

또한 실업율에서는 2% 전후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으로 추이하고 있어 3K의 일은 경원되고 제조업에 있어서의 여성인력의 채

경제성장율 1인당 GNP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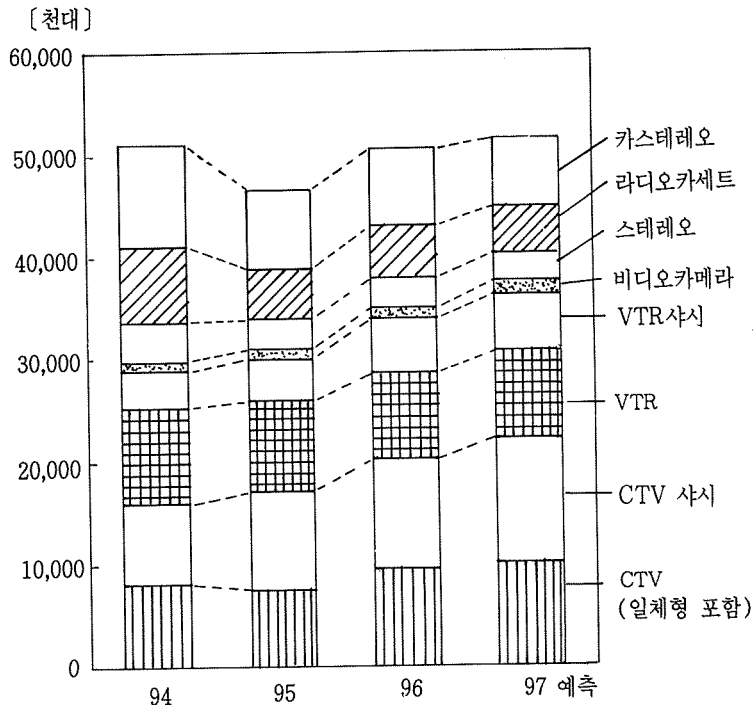


물가상승율과 전자산업노동임금



용난은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대 흡사하다.  
 줄 여성의 취직난도 표면화하고 또한,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일시  
 있는데, 이는 일본의 취직사정과 적으로 안정된 적도 있으나, 국제경

그림 AV기기의 생산추이



쟁력의 유지에 대한 경영층의 위기  
 감과 2자리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노조와의 긴장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어 노사분쟁이  
 재현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2. 전자공업생산동향

(1) 세트의 생산동향

① 해외 이전이 진행되는  
 AV기기

노동임금이 년율 2자리 상승하  
 고 있는 한국 국내생산에서는  
 AV기기의 국제경쟁력이 계속 상  
 실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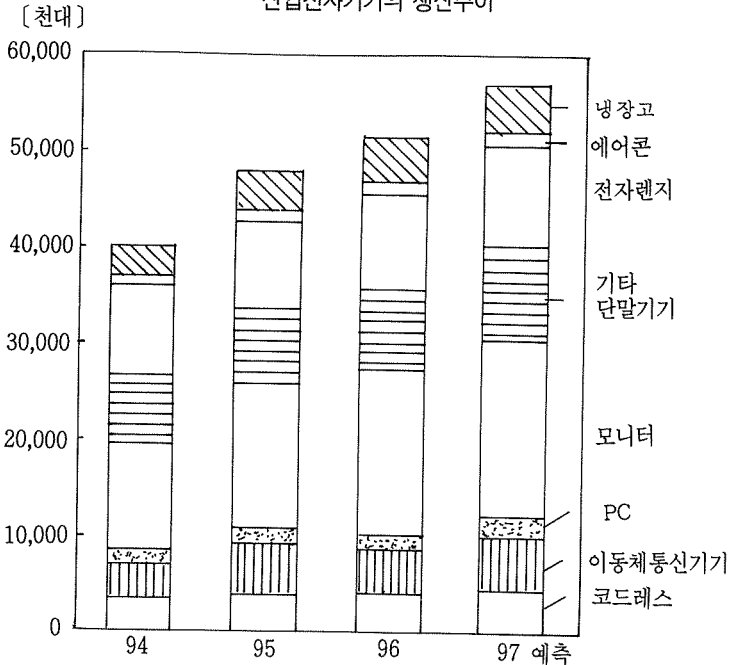
최근 수년간의 AV기기 생산추  
 이는 그림에 나타난대로 음향기기  
 는 대폭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  
 며, 영상기기도 샷시 베이스를 주  
 체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공식통  
 계가 아닌 대략적인 산정기기는  
 하지만, 한국기업의 해외생산비율  
 은 CTB가 60%, VTR이 5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까지는 엔고 기조속에서 수  
 출을 유지해 왔으나, 금후의 해외  
 이전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  
 되어 부품의 조달을 포함한 해외  
 생산체제에 충실을 기하려는 움직  
 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② 멀티미디어에 주력

AV기기의 국제경쟁력 저하에  
 따라 국내산업의 하이테크 지향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기술 제휴나 자본참가 및 자본의  
 도입이 활발화하고 있다.

산업전자기기의 생산추이



이 60~70%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2자리 성장을 계속해 왔으나, '97년의 예측에서는 3.5%로 성장율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까지는 재벌계기업의 해외 진출도 중소기업의 진출이었고, 한국으로부터의 부품수출이 중심이었으나, 대규모화에 따라 부품기업에 대한 현지진출에의 압력은 상당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의 상승, 노동력 채용문제, 원고로의 반전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국의 부품생산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이 급속히 저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노동집약적인 부품을 중심으로 해외생산이 시작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자본집약적인 부품

특히, 통신분야에서는 한국통신에 대한 PCS(개인휴대통신)와 디지털교환기의 공급자격획득 그리고 TRS(주파수공용통신)의 허가를 둘러싸고 대항재벌계를 중심으로 AT & T, 모토롤라, 노던텔레콤 등 외자와의 공동 컨서시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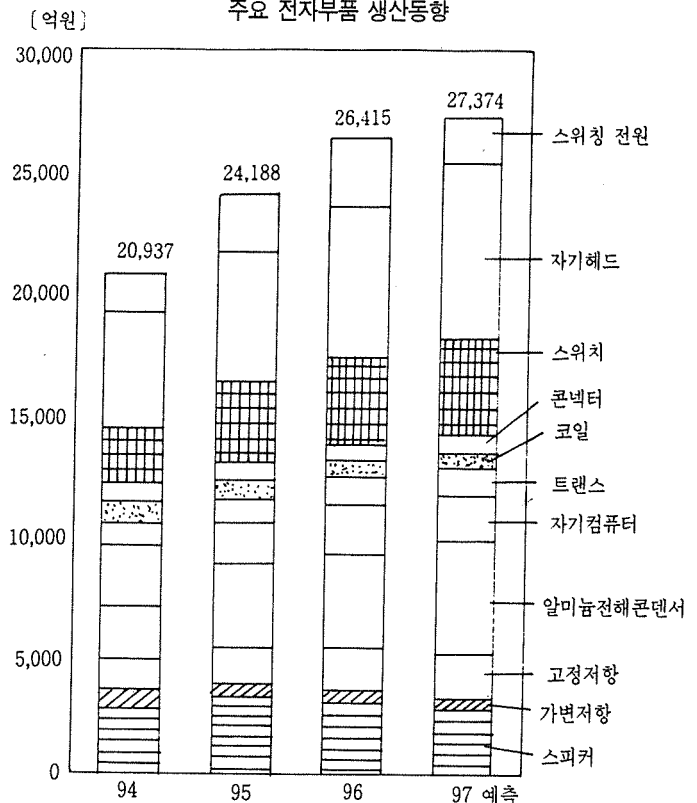
PC본체는 내수중심으로 대형상품에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으나, 주변단말기에서는 칼라모니터를 중심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HDD도 기업매수 등을 행하면서 대폭적인 증산을 예정하고 있다.

(2) 전자부품의 생산동향

- ①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부품생산  
한국의 부품생산은 일부 하이테크

크 부품을 제외하고 해외현지기업

주요 전자부품 생산동향



산업도 본격적으로 해외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② 하이테크화에의 문제

한국부품기업은 해외이전에 의한 국내공동화 대책으로써 표면실장부품 등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의 생산으로 품종구성을 변화시키고 있다.

또한 User측에서도 탈 AV기기에의 기본전략하에 통신·OA기기의 생산비율을 하이피치로 올리려 하고 있으나, 이동체 통신기구나 하이테크 단말의 중요부품은 대부분이 구미나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 대형 재벌계인 S社は 부품의 국산화 대책으로써 기술협력과 자금지원 및 일정기간의 가격보호라고 하는 인센티브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현지부품기업에 대해 추진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정책으로써도 하이테크산업에의 외국투자자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주요 우대제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대상〉 전자, 정보, 정밀기기, 소재, 신물질, 광학, 항공수송, 에너지 등에서의 고도기술을 동반한 사업

〈지원〉 ① 법인세 소득세감면, 토지·건물의 취득세 등의 감면, 자본재 도입의 관세 및 소비세 등의 감면이라고 하는 세제면에서의 우대 조치

② 외국인 기업 전용 공업단지의

조성(광주, 천안)

③ One-Stop Service의 강화 등

3.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실태와 문제점

(1)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95년의 한국기업의 해외투자는 전년대비 건수로는 387건 감소, 금액으로는 13억27백만불 증가하였다.

지역면에서는 세계 각지에 투자가 분산되어 있으며, 금액면에서는 대형화하고 있다.

전자공업관련에서는 재벌계 대기업의 해외투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에 기기조립뿐만 아니라 부품산업과 기계가공이라고 하는 주변산업과의 동반진출이 현대화하고 있으며, 또 생산공장의 투자 뿐만 아니라 시장과 기술의 취득을 목적으로한 대형기업의 매수가 복미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2) 한국기업의 경쟁력과 투자 리스크

한국의 전자산업 경쟁력과 수익성은 아래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① 제조코스트는 중요부품 및 중요설비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코스트 상승요인이 되고 있으나, 시간당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제조원가 베이스에서의 경쟁력은 아직 유효하다.

② 판매관리비는 인건비가 싸고 또 연구개발비 투자가 적기 때문에 총원가 베이스로도 경쟁력을 갖고 있다.

③ 따라서, 영업이익단계에서의 경쟁력은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브랜드의 영향력은 일본기업에 비해 떨어지고 판매가격의 열세가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베이스에서는 우위성이 축소되고 있다.

④ 영업외 비용이 제조업 평균

그림 해외직접투자(허가베이스 : 업종별·지역별)

		94년		95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업종별	제조업	1,429	2,190	1,121	2,931
	무역업	190	605	130	866
	기타	328	792	309	1,117
지역별	아시아	562	862	350	1,167
	중남미	1,065	830	877	1,232
	북미	150	931	161	1,452
	유럽	84	639	81	674
	기타	86	425	91	389
합 계		1,947	3,587	1,560	4,914

(단위 : 건, 백만 \$)

으로 5% 전후에 달하고 있어 영업이익 베이스에서는 우위성을 거의 잃고 있는 경향에 있다.

바뀌말하면, 차입(借入)의존이 높은 상황에서의 적극투자로 과잉부채와 과잉 리스크를 안고 있는 확대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건비의 상승과 원고에의 변화가 기업수익을 압박하면 장래를 위한 연구투자를 희생시킨 시장획득전략이 되기 쉬운바, 이는 대단히 취약한 일면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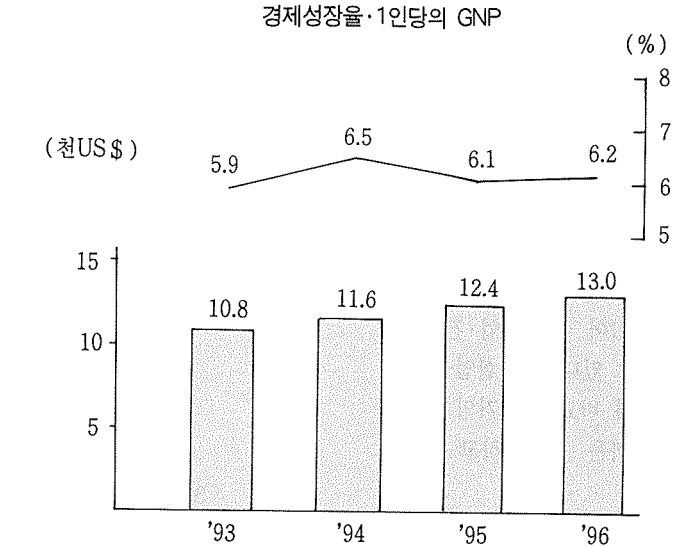
## II. 대 만

### 1. 일반개황

'96년의 실질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측에서 0.19 포인트 하향 수정된 6.17%가 되고 있다(행정원 주계처 발표).

'95년의 신장(6.5%)에 비해 둔화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내수의 정체와 투자의욕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어, 대만정부는 작년 7월에 이어 공정보합(公定歩合)의 인하(0.25포인트)를 행하여 5.25%로 하였으나, 금후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

성장의 둔화는 중국과 대만의 긴장관계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되며, 또 총선거에서 이등후 총통이 압승하였으나 일반적인 예상만큼 대만 달러가 상승하지 않고 있고 (3/25기준 U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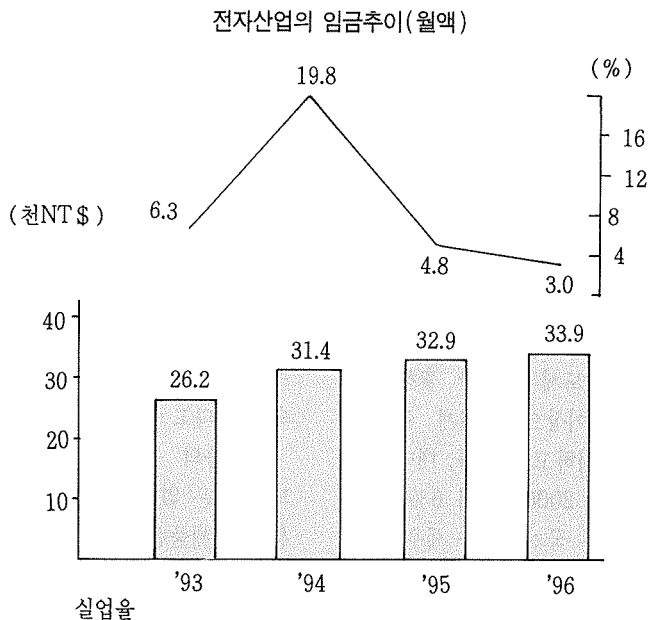
NT\$ 27.2), 또 선거후의 주가도 낮은 수준을 추이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긴장시에 US\$로 교환된 총액이 64억 US\$이었으나, 아직 대만\$로 되돌아오고 있지 않아, 이것도 대만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2. 노동환경

실업률은 미미한 상승기운을 보이고 있다.

'96년에는 2%를 예상하고 있으며, 1월=2.0%, 2월=2.1%, 4월=2.21%(약 21만4,000명)의 숫자가 발표되었는데, 실업률 상



승의 요인은 우선적으로 아래의 2가지를 들 수 있다.

(1)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점 (노동집약산업이 해외이전해 하이테크산업으로의 전환이 행해지고 있으며, 또 서비스 산업이 성장둔화를 보이고 있다.

(2) 경기후퇴가 '95년 7월부터 시작되고 있어 서비스업·건설업이 침체하고 있다. 단, 실업을 자체는 타국과 비교하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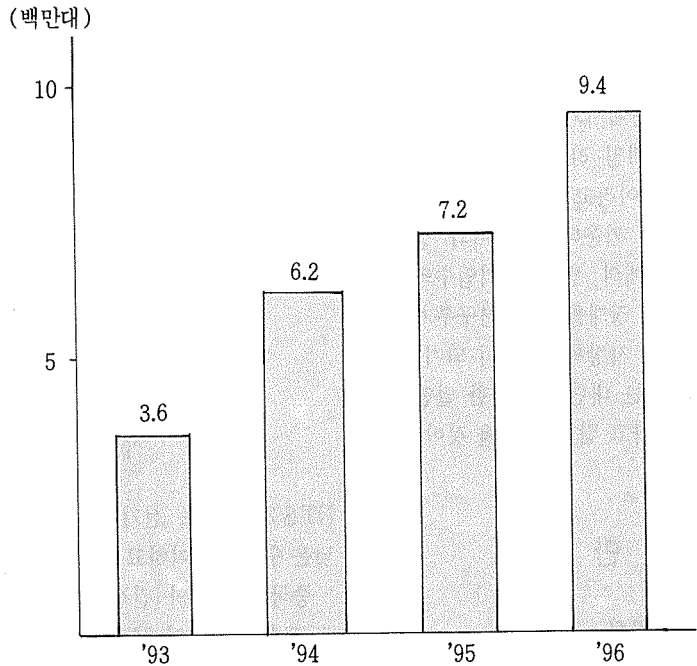
관련된 화제로써 대만에는 21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으며 (외국인 13만명, 필리핀 5만명, 기타 3만명), 취업기간은 2년간, 재입국 불가라고 하는 규칙이 있으나, 대만정부는 이 「재입국불가」조건을 완화하려 하고 있어, 대만의 실업율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3. 산업정책

新竹공업단지를 견학한바, 예상 이상의 대규모 단지로서, 환경정비도 좋아, 대만정부의 하이테크산업육성을 위한 집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이 단지와 동일한 규모의 것을 台南지역에 하나 더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반도체의 대만 출하액은 4,000억엔이상이므로 세계 웨어의 3%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만정부는 이것을 2000년까지 6%로 끌어올리려는 국가방침을 세우고 있다.

PC완성품의 생산대수



기존제품의 조립에 관한 중국본토와의 보완관계를 포함해 대만의 산업정책은 신정권의 지도하에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 4. 주요기기의 생산상황

#### (1) 영상·오디오 기기

대만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오디오 생산이 부진한 시기이지만,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AV기기에 있어서 대만시장은 성숙해 있다고 분석된다.

신제품의 동향도 그다지 눈에 띄는 것은 없으며,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제품은 주요부품 특히 정밀부품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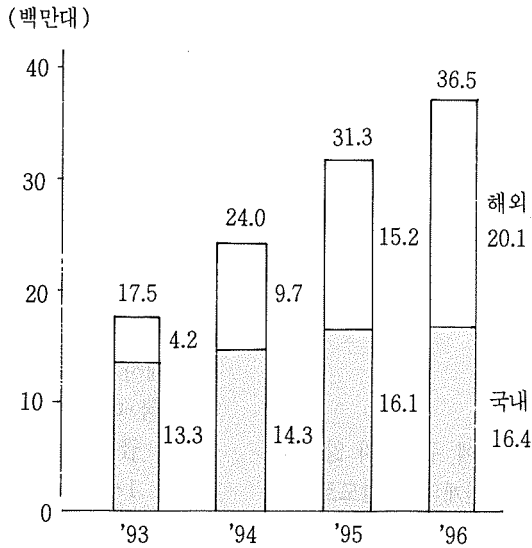
의존하였기 때문에 원가가 상승하여 생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PC

대만 컴퓨터 시장정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95년의 출하대수는 716만대(노트형 259만대, 데스크 탑형 456만대)이다. 노트형의 전년대비 신장율은 20%로 전조하며, 데스크 탑형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① 미국 홈 PC 시장의 부조 ② 대만제품의 경쟁력 저하 ③ 해외의 생산이전 등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PC용 마더보드의 대만내 생산은 '95년에 1,700만대로 여

모니터의 생산대수



기에 중국대륙에서의 생산 800만대를 더하면 2,500만대라고 하는 큰 수치가 된다(공업생산통계 월보)

마더보드의 대만생산량은 이것이 한계로 금후의 증가분은 대부분이 중국대륙에서의 생산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다.

또, PC의 생산형태로써 금후 생각되는 형태는 대만에서 반완성품까지 조립하고 수요지(미국 등)에서 완성품화하는 움직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요사항으로써 CD-ROM 메카니즘의 급성장을 들 수 있는데, 시장의 변화에 의해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97년에는 대만에서만 1,780만대를 생산하여 세계 쉐어의 32%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3) 칼라 모니터

'95년의 대만생산은 1,350만대로 흑백을 포함하면 1,610만대이고 여기에 해외생산분 1,520만대를 더하면 합계 3,130만대가 되어, 세계 쉐어의 57%를 대만 메이커가 생산하고 있으며, 모니터

도 마더보드와 마찬가지로 금후의 증가분은 해외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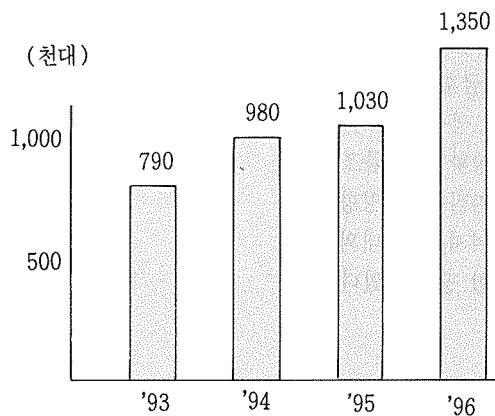
팩시밀리는 경제성장에 따라 수요확대가 예상되어 견조하게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에어콘은 중국과 대만사이의 긴장관계와 기후불순때문인지 금년도 전반은 저조하였다.

후반기에 대해서도 기후와 정치의 영향이 있다면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강하며, 전자렌지는 보합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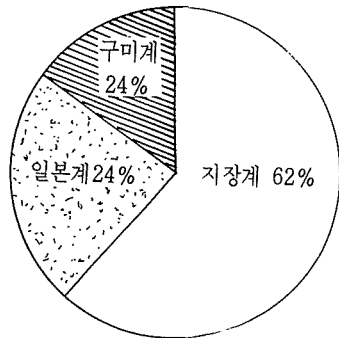
5. 전자부품의 생산현황

일반 AV기기용 부품에서는 대만으로부터 해외에 이관되는 부품의 신장이 그다지 기대되지는 않으나, PC, 모니터 메이커의 해외를 포함한 생산증가에 의해 부품 메이커도 대만 및 해외에서의 생

FAX의 생산대수



'95년의 자본계열별전자부품생산액비



산을 강화하고 있다(FBT, 전해콘덴서 등)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일본계 부품 메이커의 상대적인 지반침하」로, 조사품목 14개 부품중 일본계 메이커가 50% 이상을 점하는 것은 4개품목에 지나지 않으며(가변저항기, 코일, 소형모니터, 자기헤드), 오히려 현지 자본계의 활동이 눈부시다.

또한, 대만내 혹은 해외생산거점에 있어서 최근의 소위 컴퓨터 부품 혹은 Low-Cost부품의 동향에 고민하고 있는 부품메이커가 몇개인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금후 대만에 있어서의 전자부품의 생산은 기기메이커의 해외전개 상황 및 부품조달 루트의 상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져 대만 내외 상황을 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다.

## 6. 특기사항

중국과 대만의 긴장관계는 금후

양국의 움직임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되나, 정치관계와는 별도로 경제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인의 현실주의적인 면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표면적인 대립관계만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대만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자본」, 「생산관리 및 제조기술」, 「국제판매의 경험」과 중국이 갖고 있는 「풍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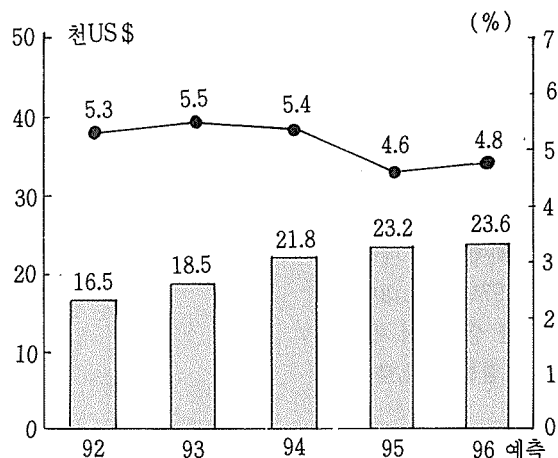
노동력과 천연자원」, 「광활한 대지」가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어, 금후 중국 화남지역에서의 협력관계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생각된다. 단, 생산량 및 사양면에서 변화가 큰 제품은 대륙생산이 부적합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이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복건성 厦間(아모이)에서는 외국투자의 60%가 대만의 것으로, 대만의 공업단지 3개소에 1,000개사가 진출을 끝낸 상황이며, 중국·대만의 긴장관계가 절정이었던 금년 3~4월 투자 허가 건수도 1~2월의 3건에서 21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이제까지 대만정부는 중국 대륙에서의 생산품에 대해 대만내의 유입을 금지(대만에서 제조하지 않는 것은 허가)해 왔으나, '96년 7월부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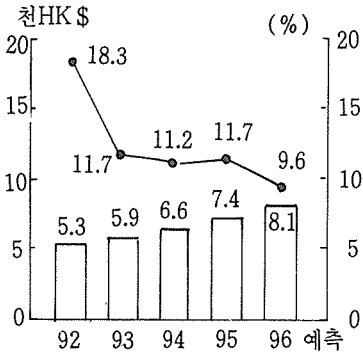
이 문제에 더하여, 금후 대만계 기업이 홍콩·중국·대만을 삼각형

경제성장률과 1인당의 GNP추이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평균임금과 상승율



으로 연결하는 사업전개 움직임이 두드러져, 이에 따라 전자부품의 공급경로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Ⅲ. 홍콩

1. 일반개황

(1) 신공항의 건설투자가 경기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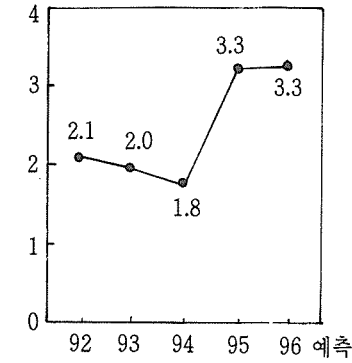
'95년의 경제성장율은 4.7%로 전년대비 0.8% 감소하였다.

'96년에는 계속된 중국의 금융실명제, 고용의 침체로 인하여 여전히 조정국면에 있지만, ① 년초 이래의 주가·부동산가격안정과 소비자 마인드 전환의 조짐 ② 신공항 프로젝트의 진행 등에 의한 내수의 확대 등이 경기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경제성장율은 4.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2)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다소 저하

'95년 상반기에 9%대였던 소

그림 3 실업률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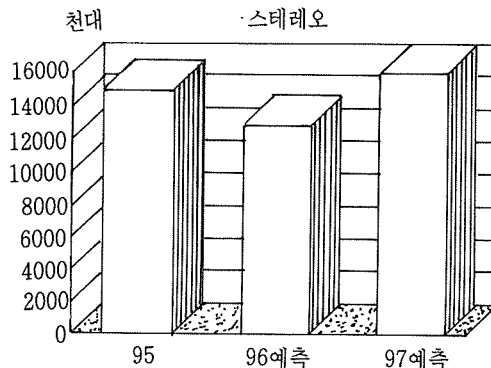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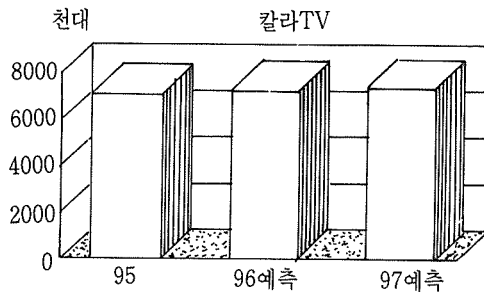
비자물가상승율은 제4/4분기에 7.7%로 저하해 '95년의 실적은 8.7%를 기록하였으며, '96년에는 임금, 주택임대료 및 식료품가격의 안정이 반영되어 7.6%가 될 전망이다.

2. 노동환경

(1) 임금상승을 10%이하로 억제 될 것인가?

최근 수년간 2자리대의 상승율이 계속된 전자산업에 있어서의 평균임금도 '93년부터 11~12% 정도로 안정감을 보여 왔으나, 최저임금법이 없고 노동수급에 의해 정해지는 홍콩의 임금은 실업율의 고저에 관계없다. 중국에의 반환을 앞두고 단기간에 구수익을 얻으려는 직업에 대한 젊은층의 지향이 높아 잡호핑(Jobhopping : 계속 직장을 바꿈)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필요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96년에도 2자리대 전반의 상승이 우려된다.

그림 4 주요기기 생산현황



(2) '95년 이래 최악의 실업률

과거 3년동안 거의 2%로 추이해 온 실업률은 '95년에 3.3%로 급성장하였다.

GDP의 약 6할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침체한 것으로 반영해, 소매업, 음식업, 호텔 등의 영업부진으로 상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96년의 전망은 개인소비의 회복은 아직 실감이 없고, 상업·서비스의 업적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3%대 전반의 추이가 예상된다.

3. 주요기기의 생산동향(중국화 남지역 포함)

- 2대 기등인 오디오와 전화기의 대폭 다운

오디오는 제품가격의 하락으로 저가품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생산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화기에 대해서는 유선의 저가품은 이미 장남감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부품메이커에게는 이미 매력없는 제품이 되고 있다.

코드레스는 미국계 메이커가 홍콩에서의 OEM생산을 멕시코로 이관한 점과 일본계 메이커의 중국 제2공장을 필리핀으로 이전시킨 점 등에 의해 양적인 확대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휴대전화기는 DECT, ISM 900의 생산확대와 경우에 따라서는 금후 새로이 PHS의 일본에의 수출 등의 가능성이 기대된다.

기타의 기기에서는 하우스웨어

(전기밥솥, 커피포트 등)가 비교적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금후의 생산품목에서는 칼라 모니터, 비디오, CD, CD헤드폰 등 하이테크 분야의 증가가 기대된다.

홍콩의 대표적인 세트 메이커인 세미테크 그룹의 출혈판매나 로칼 메이커의 도산 등을 종합하면, 이제 홍콩에서의 세트 생산품목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느껴진다.

4. 부품의 수주동향

(1) 최근의 부품수주동향

예년의 수주동향은 5월경부터 전체적으로 상승해, 피크시에는 1~3월과 비교해 3할정도 증가를 보였으나, 금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거의 없고 또 피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2) 로칼 부품과의 본격적인

경합시대에 돌입

상당한 힘을 쏟아온 로칼부품은 세트메이커의 가격전략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데, 세트메이커 중에는 로칼부품을 메인으로 하고

일본계 부품은 서브(sub)로서 사용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곳도 있다.

ASEAN에서 이전된 세트는 부품 리스트 표에 일본계 부품이 기재되어 있어도 홍콩에 오면 로칼 부품으로 변경되고 있는데, 이는 홍콩 IPO에서의 Sourcing기능을 사용해 로칼부품으로의 교체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들면, 메카부품, 수정, 코일, 코넥터, 콘덴서, 저항기 등이 채용되는 예가 많다.

로칼부품은 초기품질은 좋은 편이지만, 신뢰성에 있어서 아직 떨어진다고 말해지고 있으나, 세트메이커는 「가격우선」으로 그것을 잘 다루는 단계에 와 있어 세트의 라이프 사이클 단기화와 맞물려 금후에도 더욱 로칼부품의 사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 홍콩 IPO의 현상

(1) 「脫円」을 목표로 하고 있는 SOURCING

일본계 부품은 어떤 형태로든

주요분야별수주예측

(전년동기비 단위 : %)

시점 분야	4~6월		7~9월		10~12월		1~3월	
	95년	96년	95년	96년	95년	96년	95년	96년
칼라 TV	95	103	93	108	97	103	101	97
오디오	96	78	100	83	97	93	93	95
전화	92	88	97	90	98	92	97	92
퍼스컴	112	95	119	95	118	99	119	100
가전	101	110	110	110	107	109	104	108
전체	105	100	109	102	107	103	108	101

(각년 6월 시점예측치)

「엔」과 얽혀 있어 환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부품가격도 간단히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세트메이커는 저가의 로칼부품을 사용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다소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해도 코스트를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R&D에 있어서는 Replacement 활동을 중심으로 로칼 메이커의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2) 부가가치화하여 일본으로

홍콩의 한 IPO에서는 「일개 부품의 일본에의 수출은 코스트면에서의 메리트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미제품용의 일부 부품을 제외하면 감소경향에 있다.

현재는 홍콩주변의 서브 콘트라스트를 활용한 만완성품, 기판 어셈블리품이 태반을 점하고 있으며, 또 증가경향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단, 이것이 일반적인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문이 남는다.

6. 홍콩의 반환 「되기전까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의 정치면에서의 홍콩정책은 「중국의 정치능력을 유지하면서, 홍콩의 경제적인 기능은 그대로 둔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조건하에 보다 마일드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서는 ① 마카오 반환('99년)과 대만과의 통일을 염두에 두고 홍콩반환을 성공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과 ② 홍콩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는 국제적인 비판을 초래한다는 관점에서 홍콩시민의 희망을 어느정도 흡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도 중국이 보다 유연한 홍콩정책을 채용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반환에 의해 홍콩이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기를 맞이하였다고 해도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으로 생각된다.

1. 일반개황(고성장의 지속과 인플레이의 억제)

(1) 경제성장

경제성장율은 '92년이후 8%대로 순조롭게 추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가까이 달성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0년까지 1인당 GDP를 배증할 계획이며, 금후에도 년율 10%정도의 성장을 유지를 요구받고 있다.

한편, 작년의 높은 인플레이로 우려된 면도 있으나, '95년도는 12.7%로 전년을 하회하는 실적에 머물렀고 금년도 10%정도로 억제될 전망이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확대하고 있는데, 도시부와 농촌부의 1인당 GDP를 비교하면 표2와 같이 농촌부는 도시부의 1/3~1/4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베트남정부도 남북의 격차 이상으로 농촌부와 도시부의 격차를 우려하고 있다. 즉 농촌부로부터 실업자가 남북 쌍방의 도시에 밀려드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도이모이 정책은 고성장의 지속과 인플레이의 억제 그리고 이 지역 격차의 해소와 균형있는 성장이 금후의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2) 무역동향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에 원유와 쌀·해산물 등의 1차산품을 중심으로 수출해 왔으나, 최근에는 섬유제품이 늘고 있다.

수입은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

IV. 베트남

수출입액과무역수지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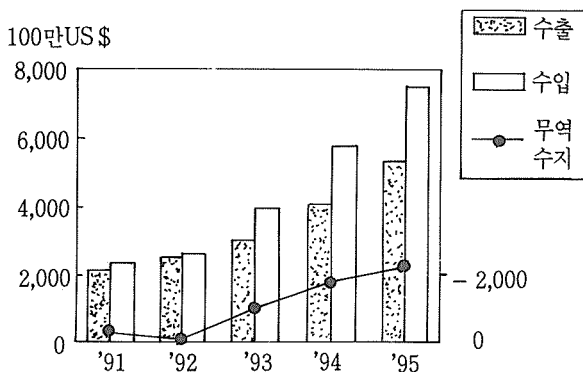


표 1 일반경제지표

	단위	'94	'95	'96예측
인구	US \$	7,250	7,400	7,500
1인당 GDP	%	235	252	270
경제성장률	%	8.8	9.5	9~10
소비자물가상승률	%	14.4	12.7	10.0
실업률		12~16	12~16	12~16

으로부터 가솔린을 중심으로 하는 석유제품 및 비료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근년의 베트남의 공업화를 나타내듯이 기계류의 수입이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ASEAN제국과 마찬가지로 금후 공업화를 추진해 가는 이상 마이너스 기조로 추이해 갈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베트남의 무역동향을 보면,

1. 무역수지의 마이너스 기조의 내용은 소비재가 거의 없고 자본재 중심이다.
2. 기계류의 수입은 일본, 한국,

표 2 1인당 GDP('95)

베트남	US \$ 252
호치민	900
하노이	650
농촌부	200

싱가폴이 경합하고 있으나, 이중에서도 저가의 한국과 싱가포르 제품이 늘고 있다.

고 하는 특징이 있다.

## 2. 투자환경

(1) 급피치로 추진되는 법규정비 '87년 12월의 100% 외자진출이 허용되는 「외국투자법」 채택 이후, 사업계획의 연장, 100% 외자에 대한 우대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BOT방식의 채택등 법규정비가 급피치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자도입에 대한 베트남정부의 태도에 종래와 같이

외자라면 구별없이 환영한다고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국가개발계획에 맞추어 외자를 선별하려는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 (2) 쫓아가지 못하는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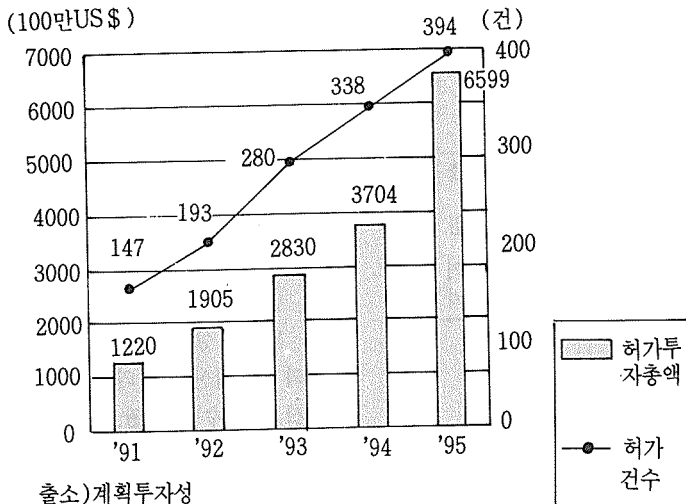
베트남 진출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 최대의 걸림돌은 미정비된 인프라 사정이다.

그러나, '95년 12월에 파리에 있어서의 제3회 베트남 지원국 회의에서 새로이 총액 23억불의 대 베트남 원조의 표명이 나타내듯이 최근 재개된 국제금융기관과 선진국으로 부터의 원조·용자에 대한 인프라의 정비가 시작되어 금후의 개선이 기대된다.

① 전력: 정부는 전력공급을 우선 프로젝트로 하여 북부에 있는 최대의 발전소 전력을 남부에 보내는 1,500kW의 송전선 건설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

그러나 증가하는 수요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특히 남부에 있어서는 우기시의 정전이 적지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외국직접투자의 추이



베트남에 있어서의 기업노동현황

최저임금 (US \$)	호치민	45
	하노이	40
	지방	35
임금수준 (Worker) (US \$)	일계기업(호치민)	110
	수출가공구( )	70
	국영기업(하노이)	50
	한국기업( )	90
보너스	년 0~2개월정도	
순인건비	임금×1.3	
연간노동시간	약2400시간	
노동인구비율	남성53% 여성7%	

② 도로 : 정부는 하노이시와 호치민시를 연결하는 국도 1호선, 하노이시와 하이퐁항을 연결하는 국도 5호선 등의 기간도로의 보수·건설등을 우선 정비프로젝트로 하고 있으나, 정비가 좀처럼 빨리 진행되지 않아 기동력있는 트럭으로의 수송은 근거리 이외에는 사용치 못하고 있어 결국 철도(남북횡단선을 포함해 단선 8노선뿐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③ 항만 : 하이퐁, 사이공, 다낭 등 9개의 주요항이 있으나, 설비의 노후가 심각하고 수심이 얕다고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④ 탄투앙 수출가공구 : 계획을 포함하면 베트남 전역에 6개소의 수출가공구와 100개소에 가까운 공업단지가 있다고 말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탄투앙 수출가공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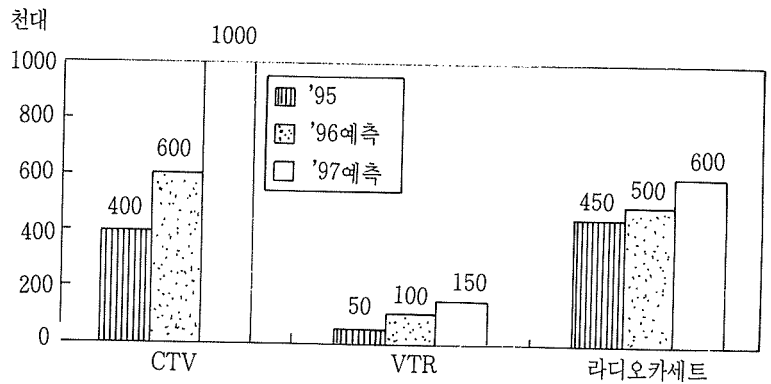
개발면적 300헥타르, 전력, 물 등의 인프라도 문제가 없고,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신청절차도 간소화되고 있다.

'95년 5월 현재 120개사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중 47개사가 일본계 기업이다.

### (3) 노동력이 인센티브

인프라와 법제면에서의 정비가 충분치 못한 베트남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다음아닌 인적자원 때문이다. 베트남 국민의 6할은 25세이하로 높은 교육수준(식자율 90%)과 주 6일 근무성에 의해 ASEAN지역에서 그 질과 양

AV기기국내생산추이



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 (4) 확대하는 일본의 투자

'88년 1월의 외국투자법 시행 이래 '96년 4월까지의 투자총액은 약 200억불에 달하고 있다.

최근의 투자 특징으로써 대형 프로젝트와 제조업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작년부터 일본으로부터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95년 실적으로 대만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고, 누계로도 대만에 이어 홍콩과 함께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투자도 하노이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작년에는 미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하였으며, 투자대상지역은 표와 같이 호치민, 하노이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 3. 전자산업동향

### (1) 아직까지는 규모가 작은 국내 수요

'91년에 전자산업이 시작한 이

래 5년간 전기각사는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 계속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21세기 초두에는 1억 2천만의 장래의 시장확대를 내다 보고 참여러쉬를 이루고 있다.

현재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도시부에서의 구매의욕은 왕성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국내수요가 적고, 주요 가전제품도 국내생산은 아직 작은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 (2) 확대하는 일본계 기업의 진출

작년의 소니 베트남에 이어 아래의 일본계 기업이 신규('96년 조업)로 진출을 준비중에 있다.

- ① 마쓰시다전기(C-TV, 오디오)
- ② 도시바(C-TV)
- ③ 산요전기(세탁기, 냉장고)
- ④ 후지쯔(HDD용 기관)

### (3) 본격화하는 한국기업의 진출

한국의 대형 재벌그룹이 하노이 근교에 국영기업과 합작으로 CRT 및 각종 부품의 생산을 개시하고 있다.

- CRT의 생산 160만분/'96

년도→320만본/'98년도 계획

• DY, FBT, TU등 각종 전자 부품의 생산

또한, 동 대형재벌 그룹은 전략적으로 베트남을 아시아에 있어서의 일대 생산거점으로 위치부여해 새로이 하노이 근교에 420헥타르에 이르는 공업단지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4) 서포팅 인더스트리의 육성을 모색하는 베트남 정부

상기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현지에서 부품조달할 수 있는 것은 ① 포장용 카톤 박스 ② 발포 PS제 쿠션 ③ 취급설명서로 한정되어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베트남정부는 지금까지의 조립 수탁생산에서 외국 부품메이커를 포함해 부품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산업구조를 강화해 갈 방침이며, 공업성도 국영기업과 일본계 부품메이커의 협업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

아울러 세트 메이커에 IKD(국산화율 10%로 관세 5% 특전)의 국산화율을 40% 이상으로 올림으로써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4. 금후의 베트남

(1) 장래성이 풍부한 베트남 경제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의 길을 걷기 시작해 5년 남짓하여 활기가 넘치게 된 베트남 시장경제로의 이룩을 위해 시동을 걸기 시작한 베트남 경제는

- a. 미성숙한 법제도와 경직된관료기구
- b. 빈약한 인프라
- c. 취약한 금융시스템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나, 질 높은 노동력을 무기로 학습효과를 높혀가고 있어 금후의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2) 대립의 시대에서 협조의 시대로

베트남은 작년에 ASEAN에 가맹하였다. 이제까지의 ASEAN대 인도지나라고 하는 대립구조가 없어져 동남아시아지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는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도 또 동남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도 더한층의 활성화와 발전이

기대된다.

V. 태 국

1. 일반경제개황

(1) 경제성장률

매년 GDP 8%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달성유지하고 있다. 외국투자도 활발해 금후에도 계속 안정된 경제성장이 예상되며, '96년의 1인당 GDP는 3,000불을 넘을 전망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당초 예측한 5.2%에서 4.9%로 억제되어 있다.

(2) 무역수지

그림1 GDP와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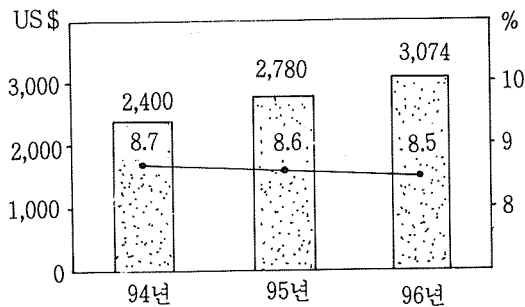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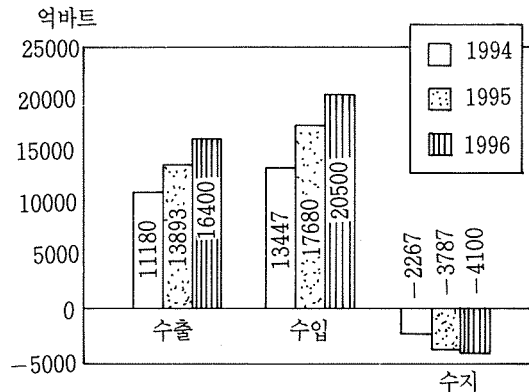


그림 2 국제무역



작년에는 수입이 수출을 상회하였으나, '96년에는 수출의 신장율이 높다.

무역수지의 적자폭은 당초 책정한 내용을 하향수정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경제발전에 따라 매년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96년의 경상수지 적자는 3,300억 바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노동환경

### (1) 노동쟁의

과거 화제가 되었던 대형 노동쟁의는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태국 특유의 단순한 국민성을 잘 이해해, 일상의 노동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2) 임금

최저임금을 3개의 존으로 나누어 매년 설정하고 있으나, '96년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제1존	146바트/일
제2존	126바트/일
제3존	118바트/일

매년 2자리 이상의 임금상승이 계속되고 있으며, 작년의 자동차산업 진출러쉬에 의해 임금은 더욱 인상되는 추세이다.

### (3) 노동력 확보

노동환경은 비교적 양호하나,

방콕 주변에서의 고용은 어려워져 채용지역을 확대해 노동력을 확보하는 경향이 보여진다. 안정된 노동력의 확보를 고려해 조금 안으로 들어간 코라트 지구 등에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도 나오고 있다.

## 3. 인프라정비

방콕근교의 교통정체는 만성화되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나, 전력, 항만 등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정비가 추진되고 있어 아시아 내에서도 시장성속도가 높은 점을 말해주고 있다.

## 4. 투자환경

'88년을 피크로 투자건수와 금액 모두 하락하였으나, '93년부터는 재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방콕이외의 지역중 특히 혜택이 부족한 존 1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수와 금액 모두 감소경향에 있다.

'96년의 제1/4분기의 투자 실적을 보면 전년동기대비로 건수는 10% 감소하였지만, 금액면에서는 거꾸로 207바트로 2배이상 급증하였다.

이것은 세계 자동차산업이 태국을 아시아 전략거점으로 한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어 투자가 최근 다시 급확대하고 있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표준적 작업자의 월액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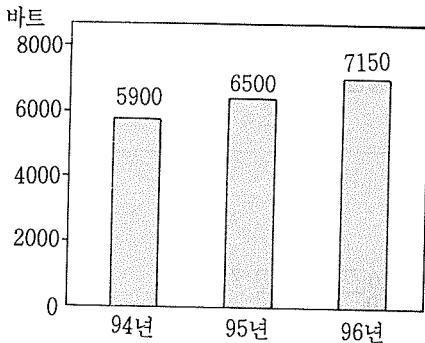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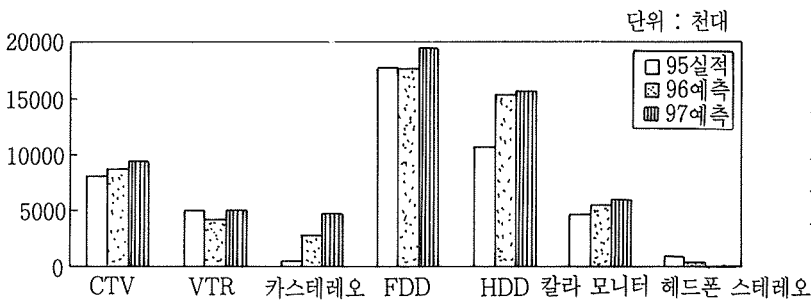


그림 4 주요전자기기의 생산동향



### 5. 현지 조달율

전자공업을 둘러싼 주변산업은 이미 화제대상이 아니며, 쿠션, 리모콘 혹은 조립가공부품 등에 한정되고 있다.

물드나 프레스 제품에 있어서는 금후 자동차관련기업의 진출에 의해 새로운 투자가 더해져 급속히 체제가 정비될 것으로 판단된다.

### 6. 전자기기의 동향

민생기기, 특히 오디오는 중국에서의 생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감소경향이 계속되고 있다.

PC주변단말, 특히 FDD와 HDD의 생산은 계속 생산호조가 예상되며, 또 자동차산업의 전략 거점으로써 태국이 주목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수요도 감안해 카오디오 메이커의 진출이 결정되어 금후 생산증가가 예상된다.

### 7. 전자부품의 생산상황

부품수요에 대해서는 태국의 기업규모와 건수 등 특이성으로 판단해 1개사의 동향에 크게 좌우되지만, 대략 2, 3개월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띄고 있으며, 특히 HDD, FDD, VTR용 모니터 생산이 견조하게 추이되고 있다.

이중에서도 HDD의 생산은 매우 활발하여 싱가포르에의 수출이 절반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구미와 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

금후에는 태국 국내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8. 금후의 태국

전자, 섬유산업의 생산기지로서 투자가 왕성하지만, 금후에는 인프라의 정비도 갖춰져 일·한·유럽·미국의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한 투자가 주류가 되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얀마, 베트남 등 근접국이 외국투자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의 조건이나 투자환경에 각국이 경합해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태국은 2000년을 향해 외국기업에게 영업활동을 자유화하는 법률을 심의하고 있어 방콕이 상업도시로 변모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전자부품의 생산추이

